

#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명옥<sup>1</sup>, 김수현<sup>2\*</sup>

<sup>1</sup>선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p>2</sup>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가족상담학과

## Depression According to Baby Boomers' Awareness on Elderly care by Elderly: Analysis of inter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yung Ok Sung<sup>1</sup>, Soo Hyun Kim<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Sunmoon University

<sup>2</sup>Dept. of Family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Integrative Medicine,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들의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의 변화과정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남에 거주하는 52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남녀 250명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 활동인식과 노노케어 수여인식의 크기는 3.56점, 3.58점으로 평균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비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 인식에 관해서는 3.17점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둘째,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과 노노케어 수여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정도가 낮았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지녔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예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적용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underlying process of change affecting depression through social support. 250 Korean adults from age 52 to age 60 years old who lived in South Chungcheong were sampled. Social support was composed of two types: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As the results, first, elderly care activities for voluntary recognition is situated on 3.56, 3.17 involuntary exposure perception of elderly care activities. Second the baby boomers get more depressed when having lower elderly care activities for voluntary recognition and lower social support. Third, there i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association with elderly care activities for voluntary recognition and depression.

**Key Words:** Awareness about elderly care by elderly, baby boomer, depression,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 1.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부양자의 노령화' 추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전체 인구의 14.7% 정도인 720만 명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들어서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노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성장 둔화나 복지비용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와의 마찰이나 관계의 질 저하[7]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52]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과도 관련이 될 것이므로 이들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Soo-Hyun Kim(Sunmoon Univ.)

Tel: +82-2-503-4203 email: [libra9969@empas.com](mailto:libra9969@empas.com)

Received October 14, 2014

Revised (1st December 26, 2014, 2nd January 13, 2015)

Accepted March 12, 2015

Published March 31, 2015

한편 인구의 고령화와 부양자의 노령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양부담이다. 여성가족부 2010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남성의 65.8%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여성노인의 경우 35.1%가 며느리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고, 그 외 가족구성원이 주된 노인의 돌봄제공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부양의식 [1,11] 및 사회화인식에 관한 조사[5]에서는 대학생은 정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부모인 중장년세대는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실제 부양행위와 부양의식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양자나 피부양자 모두에게 부양부담을 줄여지게 하고 가족간의 갈등[7]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의 활성화와 부양의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건강한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에 관한 인식 고취는 부양자나 피부양자 모두 부양부담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을 줄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라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 발병 연령은 낮아지는 등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6.8%였으며[27], 2006년 50대 남자 우울증 유병률 5.4%보다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일년 유병률의 경우 여성(4.9%)이 남성(2.4%)보다 2배 이상 높으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에 대한 요구를 가진 경우가 5.9% 차지한 것을[54] 볼 때,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 우울은 간과할 수 없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우울의 방지는 질병의 회복지연, 삶의 질 저하 및 자살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18]. 그러므로 우울의 문제는 중년의 베이비붐 세대에게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동안 중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경제상태, 종교, 연령, 건강상태[25,40,43]가, 심리적 요인으로는 부부친밀감,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3,15,25], 부양부담[36,26,12,24]

이,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배제,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35,3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우울과의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제시해줄 뿐 그 이상의 논리적 구조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우울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울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악화된 상태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이 감소됨을 증명한 연구[17,23]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측변인이 어떻게 또는 왜 준거변인을 예측하는지를 설명하는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본 연구처럼, 예측변인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과 준거변인인 우울간의 관련 발생 시간의 길이가 길거나 혹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면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완충효과 분석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인과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매개효과분석이 더 필요하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서 노노케어 인식과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관계를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베이비붐 세대만을 대상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노케어의 인식을 단순히 지식유무만을 살펴보고 있는데 보다 노노케어의 인식을 확대하여 자발적 참여형태로서의 노노케어와 비자발적 참여형태로서의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노노케어를 하는 행위자로서의 참여개념과 받는 수여자로서의 수여개념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듯 베이비붐 세대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노노케어 인식은 부양부담과 관련되는 부양의 의미와 맥을 같이하기에 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과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양 수단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어 베이비붐 세대 우울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목적은 특정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할 때, 무엇이 그 개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지를 밝히고자 함에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개입 및 처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에서 제기했던 주장과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48]. 위에서 제시한 바처럼,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예측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베이비붐 세대들이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울예방에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 인식, 사회적지지, 우울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노노케어 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노노케어 인식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선행연구고찰

### 2.1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베이비붐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 민주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의 변화까지 경험하면서 이전 세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38]. 이들은 1960년대 이후 교육기회가 본격적으로 팽창하던 시절 교육을 받아 부모세대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었고, 성인이 된 후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외환 및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은퇴가 보편화되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비자발적 은퇴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는 가족의 부양과 이들의 노후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수 발표되고 있는데, 크게 베이비부머의 집단적 특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로 노동시장이나 노후준비실태의 현황 연구와 경제적 준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 베이비붐 코호트에 대한 중단적 패널 연구[34]가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의 가족은 부머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태가 78%이며, 이들의 부부관계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1/3정도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 결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부머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성인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70.8%는 부모세대가 생존해 있고, 10명 중 1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3명중 2명은 노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4명중 1명은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간병 도움을 제공한 비율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부모 부양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므로 노인부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한편 베이비부머의 사회관계망은 친족관계는 84.4%, 친구 및 이웃관계 85%, 사교모임 77.3%에 편중되어 있고 취미/스포츠 활동은 21.5%, 종교활동 26.9%, 사회참여활동 18.7%로 실용적 목적을 갖는 모임에는 참여율이 낮다. 이는 베이비부머의 관계망이 혈연, 지연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망의 다양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 2.2 노(老)노(老)케어 인식에 관한 연구

노(老)노(老) 케어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돌봄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노인이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55]. 이러한 노노케어의 용어속에는 작게는 대상자가 와상노인이나 중증노인이고 주로 신체적 수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넓게는 일상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노인을 포함하여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수발보다는 말벗, 안부확인, 외출동행, 함께 여가 즐기기 등의 정서적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식이란 넓은 의미로는 인간지식의 총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일정 범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것으로, 객관적 실체가 인간의 의식에 이론적으로 반영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는 인간의 사회적 실천과 실천적 욕구에서 출발하는데, 특히 사회발전의 법칙에 대한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생활과정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므로, 모든 인식은 직·간접적으로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바지한다[58]. 이에 노노케어 인식이란 노노케어에 대해 갖는 가치 및 신념 그에 대한 감정적 자세를

의미한다[1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노케어와 관련된 연구들은 협의적 의미에 준한 일자리 사업에 주로 맞추어져 있고, 노인이면서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일반적 형태의 노노케어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노케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찾아 3개의 범위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간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농촌지역 노인들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본 사례연구들로, Han과 Kim[11]의 연구와 Han 외 2인[14], Yoon과 Che[16], Yoon 외 2인[18]의 연구에서 가족을 대신하여 같은 지역의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노인수발에 대한 연구가 있다.

두 번째는 노인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들로 미국의 SCP(Senior Compansion Program)는 저소득층 노인이 볼런티어로서 고령노인이나 환자의 간호, 편지 읽어주기 혹은 써주기, 고향말로 이야기 상대 되어주기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며[20], 그 외에도 노인기회 및 봉사(Senior Opportunities and Services) 프로그램과 노인지역사회활동 등이 있다[22]. 최근 일본에서도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노볼런티어’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 노인자원봉사의 유급화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문제해결과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의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연구로는 노노케어형 노인자원봉사활동[6]과 노인가정봉사원 연구[5]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노노케어 연구이다. 국내 연구로는 노노케어의 시행과정을 소개하거나 향후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기사나 연구[56], 노인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사회참여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구현할 것이라는 연구[55] 등이 있다.

이렇듯 기존의 노노케어에 대한 연구들은 노노케어라는 인식이 수반되기 보다는 주로 활동내용이 중첩된 자원봉사활동으로 조사되거나 노노케어의 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신체적 수발과 농촌이라는 특정 사회적 여건에 제한된 사례연구들,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둔 일자리 사업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앞으로 노년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노노케어라는 객관적 실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좀더

세부적으로 자발적인 노노케어 참여활동과 비자발적 참여활동에 관한 인식 그리고 노노케어를 받는 것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3 우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 발병 연령은 낮아지는 등 정신건강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조사한 베이비붐 세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은 6.8%였으며[27], 2006년 실시된 50대 남자 우울증 유병률 5.4%보다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지난해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70대 이상이 22.2%로 가장 많았고, 50대 21%, 60대 17.4% 순으로 나타났다[57]. 최근 5년 사이 50대와 70대의 우울증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2009년 50대는 전체 우울증 환자의 19.5%였으나 지난해 21%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54],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 우울은 간과할 수 없는 변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노노케어 인식과 우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노케어의 인식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부양 의식과 노인자원봉사에 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노노케어와 유사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부모 또는 다른 한쪽의 배우자를 돌보는 부양의 개념에 이들이 연소노인이면서 고령인 부모나 다른 한쪽의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노노케어의 건강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정의와 맥을 같이하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수급자가 노인이라면 역시 노노케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사의미를 지닌 개념을 토대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Yoo[19]의 연구에서는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의 고저에 따라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증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는데, 부양에 관한 전통적 규범의식은 자녀와의 갈등 및 우울증과 정적인 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Kim[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한 기대는 노인의 우울을 낮추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자원봉사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우울은 아니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임파워먼트, 활동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을 본 연구[25,26]들이

있다. 이 외에도 노노케어 서비스 태도를 살펴본 Park[8]의 연구에서는 노노케어 용어 인지자와 비인지자 모두 노노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서도 참여자가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감, 자기가치가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자아상과 부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혜노인의 노노케어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에 관한 연구[6]에서도 수혜노인들이 현재의 삶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Lee[2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인식이 사회적 인정이 높고 개인적 성취가 높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13]의 연구에서도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 인식과 비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 인식 그리고 수혜활동으로서의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들이 정신건강 지표로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4 사회적지지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는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문제를 완충시키는 효과[42]가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는데, 사회적지지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지지는 카타르시스, 자기통찰, 안심감과 신뢰감, 자신감의 향상 등을 통한 정신적 문제의 완충효과[47]를 갖는다는 점에서 보다 우울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36,24,32]에서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인간의 정신건강적 안녕을 위해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언급해오고 있으나 중년 성인의 경우, 사회와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축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의 독특한 연령 코호트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과 관련한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기여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예측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통해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처럼 노노케어가 갖는 일반적 의미 중 하나인 노

인자원봉사 개념을 갖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Kim[4]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우울은 유의하게 낮고 사회적 지지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우울증, 삶의 만족도 또는 사회적 지지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31,28]들도 있다. Lee[2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자원봉사인식에 통제변수인 사회적 지지변수를 투입하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인정이 높고 개인적 성취가 높다고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노노케어 인식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우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집설계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천안시에 거주하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충남 아산 주재 S대학의 사회복지계열의 대학생들이 조사원이 되어 조사하였고,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원들에게 사전에 본연구의 목적과 설문작성 요령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기관방문, 시장, 역 주변과 아산시 재활용센터에 내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접 설문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읽어주면서 응답을 기록하는 집합조사법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는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50부를 제외한 총 25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척도

본 연구에서의 노노케어 인식과 관련된 항목은 Sung[13]이 개발한 노노케어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노케어 태도의 하위요인인 인식, 정서, 행동적 속성차원 중에서 노노케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지정도를 파악하는 노노케어의 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선 광의적 노노케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발적인 노노케어 참

여활동과 가족부양의 의미를 지닌 비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 노노케어를 받는 것에 대한 노노케어 수역문항으로 ‘매우 긍정적(5점)’에서 ‘매우 부정적(1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체적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은 총점이 높을수록 노노케어에 대해 긍정적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체 문항의 Cronbach’ α계수는 .64이다.

### 3.2.2 사회적 지지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6문항, 사랑, 공감적 경청, 신뢰, 관심, 격려, 이해의 정서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된 Leef[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지지의 Cronbach’ α계수는 .92이었고, 정서적 지지의 Cronbach’ α계수는 .94이었다.

### 3.2.3 우울척도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Bae[9]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개발한 15문항의 SGDS(Short-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중 10문항은 긍정적이고, 5문항은 부정적으로 구성되어 예, 아니오 질문하였다. ‘예’는 2점, ‘아니오’는 1점을 부여하고 코딩 후 긍정적인 10문항을 역코딩한후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우울에 대해서 우울이 낮을수록 1점(아니다), 우울이 높을수록 2점(그렇다)으로 적용해서 분석하였으며, 우울전체 문항의 Cronbach’ α계수는 .87이다.

### 3.2.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정했으며, ‘매우 좋다(5점)’에서 ‘매우 나쁘다(1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로 산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노노케어 인식, 사회적지지, 우울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노노케어 인식과 사회적지지, 우울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Baron and Kenny[41]가 제시한 통계적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따랐다. 첫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넣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네 번째 단계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개변인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공식\*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의 대상자는 51세에서부터 59세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남녀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5.15세로 51세부터 55세 이하가 56%, 56세 이상 60세 미만이 44%이었고, 주관적 건강도 상 집단이 43.2%, 중 집단이 42.8%, 하 집단이 14% 순으로 나타났다.

$$* Z = \frac{b1 \times b2}{\sqrt{b1^2 \times Se1^2 + b2^2 \times Se2^2}}$$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1,b2와 표준오차 Se1, Se2를 의미함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N=250)

Characteristics	Items	N	%	M (SD)
Age(yr)	≤55	140	56	55.15 (2.52)
	≥56	110	44	
Sex	Male	130	52	
	Female	120	48	
Education level	≤Middle	49	19.6	
	≤High	118	47.2	
	≥College	83	33.2	
Income level (10,000)	<200	39	15.6	
	<300	103	41.2	
	<400	54	21.6	
	≥400	54	21.6	
Subjective status	Low	26	10.4	
	Middle	199	79.6	
	High	25	10	
Subjective health	Low	35	14	3.34 (.80)
	Middle	107	42.8	
	High	108	43.2	

## 4.2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지지, 우울 수준

### 4.2.1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수준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 우선 자발적인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 크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노자녀의 부양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자발적인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은 3.17점, 그리고 노노케어 수여에 대한 인식은 3.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2] Awareness of Elderly care by elderly (N=250)

Characteristics	Items	M (SD)
Awareness of elderly care by elderly	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	3.56 (.85)
	In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	3.17 (.94)
	Receiving awareness	3.58 (.73)

### 4.2.2 사회적 지지와 우울 수준

베이비붐 세대의 도구적 지지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38점, 정서적 지지는 3.58점으로 중앙값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로부터의 도구적, 정서적 지지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우울의 경우도 2점 만점에 평균 1.37점으로 중앙값 보다 적게 나와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250)

Characteristics	Items	M(SD)
Soci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3.38(.77)
	Emotional support	3.58(.72)
Depression	-	1.37(.28)

## 4.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 사회적지지, 우울의 차이

### 4.3.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차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4] 참조). 그 결과 성별, 건강, 소득,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노노케어 수여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노노케어 수여인식에 대해서는 상 집단이 중, 하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도 400만원이상 집단이 타집단보다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이하 순으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Elderly Care (N=250)

Variables	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			Receiving awareness		
	M(SD)	t/F	Dun-can	M(SD)	t/F	Dun-can
Sex	male	3.56(.90)	.11	3.48(.76) 3.68(.66)	-2.09*	
	female	3.55(.79)				
Education	≤middle	3.61(.86)	3.39*	AB	3.65(.80)	
	≤high	3.42(.83)		A	3.55(.73)	
	≥college	3.72(.85)		B	3.57(.73)	
Subjective health	low	2.91(1.04)	19***	A	3.26(.82)	A
	middle	3.48(.66)		B	3.48(.71)	A
	high	3.84(.82)		C	3.78(.66)	B
Income level (10,000)	<200	3.33(.74)	4.64**	A	3.38(.81)	1.29
	<300	3.46(.92)		A	3.57(.74)	
	<400	3.56(.77)		A	3.63(.59)	
	≥400	3.91(.78)		B	3.67(.75)	

\* p<.05, \*\* p<.01, \*\*\* p<.001

### 4.3.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5] 참조). 그 결과 성별, 소득, 계층, 주관적 건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도구적 지지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과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소득은 4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300만원미만, 200만원 미만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층별로도 도구적 지지에서 상, 중, 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과 중 집단이 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400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도구적 지지와 달리 300미만인 집단, 400미만과 200미만인 집단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도 상, 중, 하 순으로 정서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N=250)

Variables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M(SD)	t/F	Dun-can	M(SD)	t/F	Dun-can
Sex	Male	-	-		3.49(.74)	2.22*	
	Female	-			3.68(.68)		
Subjective status	Low	3.61(.86)	3.39*	AB	3.65(.80)		
	Middle	3.42(.83)		A	3.55(.73)		
	High	3.72(.85)		B	3.57(.73)		
Subjective health	Low	2.83(.66)	14.43***	A	2.92(.62)	20.446***	A
	Middle	3.34(.8)		B	3.63(.6)		B
	High	3.58(.67)		B	3.74(.74)		B
Income level (10,000)	<200	2.98(1.04)	6.41***	A	3.36(.83)	3.02*	A
	<300	3.36(.68)		B	3.59(.73)		AB
	<400	3.41(.71)		BC	3.51(.7)		A
	≥400	3.66(.62)		C	3.79(.57)		B

\* p<.05, \*\* p<.01, \*\*\* p<.001

### 4.3.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우울의 차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6] 참조). 그 결과 소득, 계층, 건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별로 상인 집단이 우울 정도가 가장 낮고 중, 하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은 상과 중 집단이 우울정도가 낮고, 하인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200

만원미만, 300만원미만 집단이 우울 정도가 높고, 400만원미만, 400만원 이상인 집단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6] Difference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depressive (N=250)

Variables		Depressive		
		M(SD)	F	Dun-can
Subjective status	Low	1.55(.33)	9.24***	C
	Middle	1.36(.27)		B
	High	1.23(.26)		A
Subjective health	Low	1.66(.26)	29.76***	B
	Middle	1.36(.24)		A
	High	1.28(.26)		A
Income level (10,000)	<200	1.44(.3)	3.17*	B
	<300	1.39(.29)		B
	<400	1.36(.25)		AB
	≥400	1.27(.28)		A

\* p<.05, \*\* p<.01, \*\*\* p<.001

## 4.4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4.4.1 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를 선별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참조).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인 성별, 학력, 소득, 직업유무 등이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인들만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 정도는 낮게 나타나고( $r=-.342, p<.001$ ), 노노케어 수여활동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일수록 우울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r=-.224, p<.001$ ).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도구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정도는 낮게 나타났고( $r=-.54, p<.001$ ), 정서적지지 역시 많이 받을수록 우울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r=-.586, p<.001$ ).

[Table 7]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N=250)

	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1	In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2	Receiving awareness 3	Instrumental support 4	Emotional support 5	depression 6
1	1					
2	.177**	1				
3	.473***	.422***	1			
4	.213**	.03	.212**	1		
5	.215**	-.002	.226***	.73***	1	
6	-.342***	.022	-.224***	-.584***	-.609***	1

\* p<.05, \*\* p<.01, \*\*\* p<.001



#### 4.4.2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8]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도구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도구적 지지, 2단계에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에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과 도구적지지 변수 모두 투입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하며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의 비표준화된 계수값이 2단계 -.073 ( $p<.001$ )에서 3단계 -.052( $p<.01$ )로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도구적 지지가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우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도구적 지지를 활성화시키고, 도구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지지도 1단계에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지지에, 2단계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에서도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지지 모두 유의미하였다. 즉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의 비표준화된 계수값이 2단계 -.073( $p<.001$ )에서 3단계 -.049( $p<.01$ )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서적 지지가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우울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노노케어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 4.4.3 비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도구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비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이 도구적 지지에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에 있어서도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비자발적인 노노케어 활동인식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4.4 노노케어 수여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도구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노노케어 수여인식이 도구적 지지에서 유의미하고 2단계에서도 우울에 유의미하나 3단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에 있어서도 1,2단계에서는 유의미하나, 3단계인 노노케어 수여인식과 정서적지지 변인 모두를 넣었을 때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노노케어 수여인식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노케어 수여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 4.4.5 매개변인의 효과성 검증

sobel 공식을 이용하여 매개변인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식에 있어 도구적지지( $Z=-3.88$ ,  $P<.001$ )와 정서적지지( $Z=-3.99$ ,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Table 8]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 (N=250)

	Instrum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step 1	step 2	step 3	step 1	step 2	step 3
	Instru.	Dep.	Dep.	Emo.	Dep.	Dep.
	B(β)	B(β)	B(β)	B(β)	B(β)	B(β)
Health	.276 (.29)***	-.117 (-.33)***	-.073 (-.21)	.261 (.29)***	-.117 (-.33)***	-.067 (-.19)**
Voluntary care activity awareness	.136 (.15)*	-.073 (-.22)***	-.052 (-.16)**	.131 (.16)*	-.073 (-.22)***	-.049 (-.15)**
Instrumental			-.158 (-.43)***			
Emotional						-.189 (-.48)***
F	19.65***	33.117***	48.162***	8.036***	33.117***	32.075***
R <sup>2</sup>	.137	.211	.37	.089	.211	.344

\* p<.05, \*\* p<.01, \*\*\* p<.001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이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개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서 논의 및 제언을 하겠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과 수여인식에 관해서는 3.56점, 3.58점으로 평균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비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에 관해

서는 3.17점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이는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의 경우 가족부양의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에게 자녀로서 부양부담으로 작용하여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족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체계로서 노노케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생활과정을 의식적·계획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므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자녀로서 노부모 부양과 배우자 부양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부양부담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방법을 모색하거나 교육기관 또는 복지시설 혹은 직장내 은퇴연수과정 안에서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 정보화교육을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 사회적지지,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교육별, 주관적 건강상태별, 소득수준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노노케어 수여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지지에서 남성에 비해 긍정적이었고, 교육별로는 초대졸이상 집단이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에서 가장 긍정적이며, 주관적 건강상태별로는 상 집단이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과 노노케어 수여인식, 사회적지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하 집단은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인식과 사회적지지 모두에 긍정적이었으며, 우울은 낮게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45,50]와 일치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문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서도 중년성인에게 있어 건강할수록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44,50,32]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노노케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를 위해서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여건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노노케어 수여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지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연령 코호트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사회와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축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일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그

리하다. 또한 노노케어 참여자로서의 인식은 자기가치감을 획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수여자로서의 인식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이 우울을 높일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성을 대상으로 노노케어 교육을 함에 있어 노노케어 참여자로서의 자기가치감 획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여자로서의 무기력함이 아닌 노노케어를 사회적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우울이 낮음을 살펴볼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노케어 인식 고취와 우울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기업에서 이들의 지속적인 소득확보를 위한 다양한 직업개발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로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중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관들의 이용확대를 위해 주말을 개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한 다중회귀식에서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 $p < .001$ )과 노노케어 수여 인식( $p < .001$ )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모형으로서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만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노노케어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부적인 관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증가된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건강과 우울, 사회적 지지와 우울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부

분적으로 일치하였다[32,29]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노노케어에 대한 인식 중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과 노노케어 수여 인식 모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로서 자발적 노노케어 활동 인식과 수여자로서의 노노케어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이 감소하므로, 중년의 심리사회성 발달에 해당되는 생산성 획득에 있어 참여자로서의 자기가치감 획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여자로서의 무기력함이 아닌 노노케어를 사회적 보상의 개념으로 재조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도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줄이는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노노케어 인식과도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노케어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부양수단의 개념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사회적 지지의 활성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우울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로의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베이비부머 5명중 한 명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2010년 13.2%에 비해 2012년 남성은 16.5%, 여성은 21.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태[34]를 고려해볼 때, 베이비부머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하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27, 28,46]에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 정서적 지지가 우울감을 낮추는 변인임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는 특히 지역사회내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있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경우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이들의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을 줄이는 기제로서, 우울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개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가령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베이비부머들의 정서 지원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지망 강화, 노노멘토링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

안시와 아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 베이비붐 세대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대상지역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객관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지표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구조와 기능의 다차원적인 연구 관점에서 주관적, 객관적 평가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상관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계열상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를 하거나 실험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1] J.S. Kang, D.Y. Jung, & Y.Y. Kim.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elderly dependents consciousnes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9(3), pp.851-865, 2009
- [2] M.L., Kim, Effects of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dependents duty expected, parental satisfaction and cohesion affect children, *Korean Journal Family Welfare*, Vol.24(12): pp.161-188, 2008
- [3] S.J., Kim, S.Y., Kim. Menopausal symptoms of depression and relationship closeness couple of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19(3), pp.176-187, 2013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13.19.3.176>
- [4] S.H., Kim. On the mean physical health,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re affected life volunteering,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33(1):53-66, 2013
- [5] I.J.NO. "Work experience of the elderly home help", Buddh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6] S.S., Park. A Study on the elderly recipients experience in the elderly volunteering, soongsil university grauate, Master's Thesis, 2007
- [7] Y.J., Park, L.Y., Song.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dependent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caregiving burd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9, pp. 403-428, 2008
- [8] H.Y., Park, A Comparative study on mood states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participants and the non-participants of elderly care by elderly,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linical Nursing

- Information, Master's Thesis, 2009
- [9] J.N., Bae. DSM-III-R diagnosis of a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for major depression Accuracy, Seoul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1996
- [10] J.Y., Bae, Y.H., Kim, K.A., Yun,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and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5(3), pp.59-73, 2005
- [11] K.H. Han, J.H., Kim. "Case studies 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interaction of the elderly in the rural villag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16(1), pp.73-88, 2005
- [12] J.H., Baek, Steven, H.Z.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dementia caregivers elem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29(4): pp.1591-1609, 2009
- [13] M.Y., Sung. The effect of family health on attitudes about Elderly care by Elderly of baby boom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64, pp.395-420, 2014
- [14] K.H. Han et al. "Properties and interactions of seniors living space as a rural village", *Rural communities*, vol. 15(2), pp.85-131, 2005
- [15] J.H., Son., M.S., Huh.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middle-aged women analysis., *kyungseong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9(2), pp.155-178. 2013
- [16] S.D. Yoon., H.S., Che. "Case study on the problems of elderly care by community elderly in rural korea", *J. Welfare for the aged.* vol.40, pp. 31-54, 2008
- [17] A.R., Eom. Factors affecting female seniors Depression.. Seoul City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2012
- [18] H.S., Che, S.D., Yoon & K.J., Park. "Rural areas, elderly care handbook for ac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15(1): 1-21, 2008
- [19] H.J., Yoo. Effects of a child cohesion, conflict and depression awareness of the Code of elderly dependents affect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9: 107-130, 2000
- [20] J.C., Fisher & K.M., Cole. Management and leadership of the volunteer program by S.H., Yoo(Eds). Seoul, Asia Media Research, 1998
- [21] D.Y., Lee.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Health Effects of seniors volunteer recognition, Seoul City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Urban Science, Master's Thesis, 2013
- [22] S.H., Im. Studies on the Nono recognition of combustion Elderly Care Services. Donggik University Buddhism graduate, Master's Thesis, 2008
- [23] I.J., Lee. Studies on the impa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the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men and women depressed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7: 159-179, 2007
- [24] J.Y. Lee, Y.A., Kim. State long-term care services for dependent elderly family burden, family support, depression, satisfaction,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0(1), pp.41-48, 2009
- [25] M.J., Kwok, C.H. Joo. Motivation of senior volunteer study impact of empowerment, *Annals of social science*. vol.24(3), pp.3-33, 2013
- [26] K.H., Ryu, Impact studies on the elderly volunteers Motivation is met life satisfaction and lasting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5(2), pp.145-172, 2013
- [28] H.S., Park. Economic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elderly household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 [29] S.D., Jung, M.J., Go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2: 305-324. 2011
- [30] Y.K., Joh. Effects of self and identity in midlife depression affect women volunteer.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duate Women Development, Master's Thesis, 2002
- [31] Y.J., Joh. Focusing on the support of family, a sense of participation in the cr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17(2), pp.191-205, 2008
- [32] M.K., Choi, Y.H., Lee. Depression in middle-aged adults and helplessness, social support and socio-economic statu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19(2), pp.196-204, 2010
- [33] Y.L. Tak, S.A., Kim, B.S., Lee. Study of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in Elderly Wo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9(4): 449-456, 2003
- [34] K.H. Han, et. al. Korea Boomers 2nd year panel study report 2010-2012, Seoul University, Aging Research Center, 2012
- [35] J.Y. Huh.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 well-being of middle-aged depressed women. Kosin University Graduate, Master's Thesis, 2013
- [36] J.Y. Hong, M.H, Kim, H.J, Ba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depression and burden in spouse caregivers affected. *Kor. J. Psychol.: Cul. Soc.- issues*, vol.8(3), pp.367-387, 2012
- [38] I.S. Kwok, S.H., Hong. Baby Boomers'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7(2), pp.147-172, 2013
- [39] K.H. Han, et al.. Changes and continuities in Korean baby boomers' lives, 2010-2012. *Baby Boomer panel*

study 2nd year report, 2013

[40] Adelman, P.K.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national sample of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77-84, 1994

[41] Baron, R.M. and D.A.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42]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1976  
DOI: <http://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43] Davidson, H., P.H.Feldman and S.Crawford, "Measuring depressive symptoms in the frail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9(4): 159-164, 1994  
DOI: <http://dx.doi.org/10.1093/geronj/49.4.P159>

[44] N.J. Kim and Y.I. Chun.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symptoms or their health condition and the degree of exercise in middle aged women.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2(2), 83-92, 2003

[45] S.S. Lee and W.H. Cho. "A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middle aged women-based on women living in Geoje C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105-115,2006

[46] H.S. Jung.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Gong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7

[47] Munakata, T. Health and illness in behavioral science Munakata, 1996)e. Tokyo: Medikaru Hurendo Sha .1996

[48] Pederson, E.L. and Vogel, D.L.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2007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4.4.373>

[49] Piazza, J.R. and Charles, S.T., "Mental health among the baby boomers" in whitbourne, S.K. and Willis, S.L.(eds.), The baby boomers grow up: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idlif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6

[50] H.S. Shin, "Effects on depressive disposition of middle aged women by style of living",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7(1), 29-45,2002

[51] Sobel, M.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pp.290-312 In Sociological Methodology by S.Leinhardt(Eds) 1982. San Francisco: Jossey-Bass.1982

DOI: <http://dx.doi.org/10.1093/geront/37.4.505>

[52] Strawbridge, W.J., Wallhagen, M.L., Shema, S.J., and Kaplen, G.A.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4); 505-510, 1997

[53] Stuart, G.W.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10th Edition Stuart Mosby Elsevier, Missouri.2009

[5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n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baby boomers in 2010,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ow birthrate aged society Laboratory, 2010

[55]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enior business jobs General Information, 2006

[56] J.H. Yeom. "Elderly care by Elderly proc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future policy challeng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y vol. 33(2): 221-238, 2013

[57] H.Y. Kwok, "The baby boom generation, 50 depression, recent increases 5 years", [www.khan.or.kr](http://www.khan.or.kr), 10.26, 2014

[58] [www.britannica.co.kr](http://www.britannica.co.kr), 2014

**성명옥(Myung Ok Sung)**

[정회원]



- 1981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석사)
- 1994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행정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선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사례관리

**김수현(Soo Hyun Kim)**

[정회원]



- 199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문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선문대 통합의학대학원 가족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부부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베이비붐세대